

전남교육청, 시·도교육청 평가 최고 성적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종합 3위, 특성교육 1위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특성·토론 수업이 교육부 주관 2016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특성 교육분야 1위를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7개 평가 영역 중 5개에서 최우수·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종합 순위에서도 지난 2006년 평가 순위가 공개된 이후 최고인 3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2개 권역(시·도)으로 구분해 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특성사업 등 7개 영역을 평가해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교육청이 특성사업으로 제출한 '특·토론'을 평한 학생, 열차학교로 꼽아 '특·토론'이라는 우수사례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정만체교육감 부임 이후 9년 동안 역

점과제로 추진한 '특·토론수업'이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다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 의미가 왜소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편지학교'도 전국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향후 독서토론수업에 대한 교육정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7개 평가영역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협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강화', '시·도교육청 특성사업' 등 무려 5개 영역에서 최우수·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교육청은 2010년 7월 정만체 교육감 취임 이후 '실용적 진보'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고, 전남교육 전반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전남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육역량을 결집시켜 왔다.

이번 결과는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열악한 전남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갔던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특히 2년 연속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11개교 선정으로 학교수 대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국·영·수 주요 과목의 답안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2012년과 2015년 결과 비교에서 4개 영역 모두 상승했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대학 수험능력시험 언어영역도 전국 15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또 고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의 거점형 육상사업으로 국비 5천여억원을 지원받아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기업 맞춤형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고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은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정만체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2015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15개월 중 13개월 동안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천호 정책기획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2010년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정만체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학교, 교육청,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탐과 열정이 결합된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지속적인 내실화를 추구해, 미흡한 영역은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이뤄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 교부금을 연방에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전남도교육청은 교부금교육환경개선 등 어려운 전남교육 현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열정과 끼 넘치다

극성한울고, 뮤지컬 공연 실시

전남 곡성군 안을고등학교(교장 이종태) 학생들의 두 번째 뮤지컬 무대가 성황리에 끝났다.

동아 아드름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끼가 넘치는 연기에 배꼽을 쥐기도 하고 부모님은 네 남매가 갈등을 받고 화합하는 장면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전체 관객의 1/3은 곡성고 등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미남 출연자들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7월 12일 오후 7시 곡성 레저문화센터 마트룸,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불안해 했지만, 늦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보였다. 6시 반이 지나면서 삼삼오오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잠시나마 학생들로 장사진이 이루기도 했다.

한울고 학생의 부모님과 한울고 소재 목사 동문의 주민들로 400석의 객석은 거의 만석이였다.

곡성군수와 군외 의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고,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 안전과 일일제 과정과 장학사들은 공연 후에 또 아이들을 크게 격려하느라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이번에 공연된 뮤지컬 '위대한 유산'에서 흥겨운 군무부터는 배우가 개인별로 연기 하면서 무대는 독창이 많았고 또 연기과 대사의 비중이 높았다.

그런 만큼 수준 높은 연기력이나 능숙한 대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주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이었다.

하지만 한울고 학생들은 개인기와 연상, 그리고 넘치는 끼로 이 우려를払으며 오히려 약 1시간 가까운 공연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만들었다.

특히 직장 상사, 짜장면 배달원, 부동산 업자, 흥신소 소장 등을 오락가락 하는 멀티 역할의 고신용 학생(고2)의 해학적인 연기는 모든 관객을 자지러지게 만들었다.

공연 후 전남도교육청과 김선정 교장은 "지난해보다도 훨씬 성숙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고 평했다.

이종태 교장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번 작품 '위대한 유산'의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울고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유력한 수단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뮤지컬 연상 및 공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학부모들에게 선사한 큰 감동

함평공공도서관, 모태가 된 모노드라마 '아버지' 공연

전남함평공공도서관(관장 심상미)은 15일 함평여자고등학교에서 특이한 시인의(아버지의 기쁨소리-이미에) 시낭송을 시작으로 모노드라마(아버지) 공연을 개최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2016 올해의 책(올해의 작가 아버지)를 극화한 모노드라마 공연을 통해 책과 예술을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라남도립도서관에서 주최하고 함평공공도서관에서 주관하여 마련했다.

특히 공연이 끝난 후에는 독서토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버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펼쳐 좋은 책을 함께 읽고 흥미로운 독서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배우 이유태는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통해 우리 아버지들의 축 처진 어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며, 가족들 각각의 안ตา꺼울과 아픈 현실을, 서로 공유하고 많은 대화로 소통하고 이해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



는데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며, 함평여고 학생들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금을 기증했다.

함평여고 1학년 정민지 학생은 "'아버지'를 주제로 한 시낭송, 연극, 토론을 통해 다양한 독서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매주 토요일에 함평공공도서관의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나에게 숨어 있는 꿈과 소질을 발견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애들이 시장가자! 알뜰시장으로!"

금일초병설유치원, 아나바타 알뜰시장 실시

전남 완도군 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14일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애들이 시장가자! 알뜰시장'을 실시했다.

이번 알뜰시장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아나바타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제는 키가 커서 못 입는 옷, 장난감, 책 등을 모아와 아나바타 알뜰시장에 사용했다.

이번 알뜰시장에서는 음식식, 장난감가게, 옷가게, 문방구, 서점, 생활용품가게가 열렸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생각하고 사보는 경험을 해본 유아들은 나눔의 의미와 함께 건전한 소비정신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권병두 원장은 "시장재림이 원생들에게 물건의 소중함과 서로 나누어 쓰고 아껴 쓰는 방법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나이가 어긋아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일초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이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 기쁘다"는 학부모 의견과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눔 교육의 일환으로 알뜰시장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 말했다. 알뜰시장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 기부할 예정이다.

진도고성중, 전통예능 재능 기부로 나눔과 배려 실천

진도군 고성중학교(교장 김원중)는 7월 13일 50여명의 학생과 교원이 진도군 고군면 신진초·노복지 센터를 찾아가 전통예능 공연을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1교1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학교문화 및 프로그램으로 주 1회 방과후학교 전통예능교실에서 익힌 난타, 가야금, 진도북춤, 장, 사물놀이 공연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어른신이 좋아하는 간식과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학년말에는 전통예능 뿐만 아니라 밴드공연 등

다양한 공연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다고 밝혔다.

고성중학교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로 '올바른 인상을 지니고 몸과 끼를 키워가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통예능교실 및 강강술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형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통과 힐링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以熱治熱은 옛말!

장성동화초, 스케이트 체험 실시

장성군 동화초등학교(교장 윤석훈)는 프로젝트 활동 두 번째 체험으로 7월 14일 방주에 있는 염주아이스링크로 전교생 37명이 스케이트 체험을 다녀왔다.

동화초등학교는 4월에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많은 의견이 나온 두 번째 프로젝트를 전교생이 함께 다니는 스케이트 체험을 다녀왔다.

여름 체험으로 스케이트가 많이 나온 것은 여름에 시원한 곳으로 체험하심을 가고,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체험하심을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스케이트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염주아이스링크에 도착하여 빙

상 안전교육을 받고 강사 선생님께서 기능교육을 받고 수준에 맞춰 감을 받거나 자유스케이트를 즐겼다.

최현준 학생은 "여름에 시원하다 못해 추운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니까 아이스크림을 두 시간 동안 먹는 기분이었다. 요즘 덥고 습해서 짜증도 많이 났는데, 우리가 낸 공기가 선택되어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훈 교장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위도 너무 더운 요즘, 더위를 피해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도 좋을 것 같다. 반편이 있는 생각으로 여름을 즐기기 위한 공모를 낸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동화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교육적 의견이 많아 스케이트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염주아이스링크에 도착하여 빙

(유) 하나로합정

방역 (학점소매) / 건물 관리 / 자수부 협조

취업관리지원 (훈련/실무협조)

TEL : (061)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1)323-0036

E-mail : hsb5222@hanmail.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살균 / 살충

TEL : (061)324-2931 / H.P : 010-8514-8006

영 업 종 목

간이상수도청소 : 마을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선 등

공 간 소 독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무인자동살균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용 예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